

# '카카오뱅크'발 핵폭풍...긴장하는 시중은행

출범 나흘 만에 82만 계좌 넘어 화들짝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액 늘려 맞춤형 프리미엄서비스 강화 등 차별화 고심



"나 떨고 있지."

국내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초반 기세에 시중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7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핵폭풍이란 표현이 어색치 않을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현재 계좌 개설만 82만 600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예·적금액은 2750억원, 대출액은 2260억원을 기록했다. 4월31일 문을 연 케이뱅크가 계좌 40만 개를 넘는데 100일이 걸렸고, 16개 시중은행이 2015년 12월부터 1년 간 확보한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가 15만5000개 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장 속도다.

이런 돌풍은 국민 앱이라 불리는 메신저 '카카오톡'의 높은 인지도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카카오뱅크는 거래나 계좌개설 시 공인인증서와 화상통화 인증이 필요없는 간편함과 신용대출과 해외송금 등에서 금리와 수수료를 낮춘 가격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다.

카카오뱅크가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면서 시중은행들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카카오뱅크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지녀 어느 정도 경계는 했지만, 이 정도로 돌풍이 거셀 줄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카카오뱅크의 특장점을 보고 그에 대항하는 맞불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우선 저렴한 해외송금 수수료에 맞춰 우리은행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로 맞섰다. 올해 말까지 비대면 채널로 해외송금을 하면 500달러 이하는 2500원, 500달러 초과 3000달러 이하면 5000원으로 송금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의 높은 인지도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초반 바짝 기세를 올리자, 시중은행들이 맞불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맞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모델들이 카카오뱅크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뉴스

이용의 간편함은 KB국민은행이 정면대결에 나섰다. 소득증명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소액 모바일 대출 서비스 'KB 리브 간편대출'을 내놓은 것. 고객등급 골드스타 이상이면 소득증명서 없이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 늘리기도 경쟁적으로 나섰다. 카카오뱅크가 한도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허용하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던 직장인 대상 모바일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일제히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KEB하나은행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메뉴를 우선 배치하는 등 사용자 편의 증진으로 앱을 개편했다.

물론 시중은행 일부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초반 상승세를 너무 의식하기 보다는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마이웨이'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장들이 최근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통해 경영전략 재수립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이 부산해 전체적인 기조는 변화 쪽으로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촉발한 시중은행의 위기의식과 그에 따른 대응책이 향후 금융권의 판권 포인트다"며 "카카오뱅크와 같은 길을 갈지, 아니면 틈새시장을 노릴지 고민은 당분간 갈라질 전망이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 하나금융그룹 '하나 파워온임팩트' 프로그램 뜬다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인프라 구축 실현

하나금융그룹이 '하나 파워온임팩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존 복지혜택 제공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이슈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사회적 가치를 혁신한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CSR)이다.

첫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재능을 활용해 그들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양대학교 LINC+사업단, 사회혁신 컨설팅·투자기업 연와이소셜컴퍼니와 함께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의 교육 R&D 자금지원, 발달장애인 인턴십 및 채용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하나 파워온임팩트' 출범식 모습. 사진제공 |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측은 "향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 "약 먹은 뒤 졸리고 어지러워요"...혹시 의약품 부작용?

상반기 부작용 사례 1만건...23% 증가 약 복용 시 운전·기계조작은 사고위험

의약품 부작용 사례로 졸림과 어지러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부작용보고 집계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만3천으로 2016년 상반기의 8064건에 비해 약 23% 가량 증가했다. 부작용 발생 환자 비율은 남성 31.7%, 여성 68.3%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졸림 13.0%(165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불량 8.1%(1024건), 어지러움 7.8%(984건), 설사 5.3%(667건) 순이었다. 졸림이나 어지러움은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위장관계 장애가 32.3%(4103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19.3%(2447건),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13.6%(1720건), 부종·체온변화·피로·무력감 등이 포함된 전신적 질환이 9.7%(12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처방조제의약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처방 없이 구매가능한 일반의약품이 183건, 건강기능식품이 25건이었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 천호식품, 이승우 신임 대표이사 선임



건강식품 전문기업 (주)천호식품의 오너경영이 막을 내렸다. 천호식품은 30일 이승우(사진) 신임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승우 대표는 1959년생으로 성공관대학교를 졸업했고, 1983년 LG화학에 입사 자동차 부품 사업부장, LG 하우스 시스템 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는 ㈜아워홈으로 자리를 옮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아워홈을 단체 급식 사업과 식자재 유통 사업 부문 업계 1위로 정착시켰다. 이승우 신임 대표는 "천호식품이 고객의 신뢰를 되찾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원형열 기자

## 인사

금융위원회 (전보) △기획조정장 김학수 피플 △금융정책국장 유재수 △구조개선정책관 윤창호 △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중소저민금융정책관 이명순 △위원장 정책보좌관 도규상

## 부고

◇정창현씨 별세. 정순민(파이낸셜뉴스 문화스포츠부장)·순철(비플컨설팅 수석)씨 부친상=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8월1일 오전 8시, 02-2227-7500

◇신오문 씨 별세. 최종성 수원경성종합건축사 대표 변호사 전HMC투자증권 홍보담당 모친상·구희산 중앙대 명예교수 장모상=30일 아주대학교 장례식장 3층 35호실, 발인 8월1일 오전 8시 031-219-4601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도시	날씨	최고/최저
서울	흐림	25/29
인천	흐림	25/29
대전	흐림	25/30
청주	흐림	25/30
광주	흐림	26/33
전주	흐림	25/31
제주	흐림	27/33
충청	흐림	24/32
강릉	흐림	30/30
울산	흐림	23/30
대구	흐림	30/30
부산	흐림	24/30
경남	흐림	24/30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31일(월요일) 음력: 윤 6월 9일

행운색	행운방향	행운숫자
흰색	서쪽	19, 29, 38, 47, 56, 65, 74, 83, 92
흰색	북쪽	1, 10, 19, 28, 37, 46, 55, 64, 73, 82, 91
검정	남쪽	2, 11, 20, 29, 38, 47, 56, 65, 74, 83, 92
검정	동쪽	3, 12, 21, 30, 39, 48, 57, 66, 75, 84, 93
노랑	서쪽	4, 13, 22, 31, 40, 49, 58, 67, 76, 85, 94
노랑	북쪽	5, 14, 23, 32, 41, 50, 59, 68, 77, 86, 95
노랑	남쪽	6, 15, 24, 33, 42, 51, 60, 69, 78, 87, 96
노랑	동쪽	7, 16, 25, 34, 43, 52, 61, 70, 79, 88, 97
흰색	서쪽	8, 17, 26, 35, 44, 53, 62, 71, 80, 89, 98
노랑	북쪽	9, 18, 27, 36, 45, 54, 63, 72, 81, 90
노랑	남쪽	10, 19, 28, 37, 46, 55, 64, 73, 82, 91
노랑	동쪽	11, 20, 29, 38, 47, 56, 65, 74, 83, 92
흰색	서쪽	12, 21, 30, 39, 48, 57, 66, 75, 84, 93
노랑	북쪽	13, 22, 31, 40, 49, 58, 67, 76, 85, 94
노랑	남쪽	14, 23, 32, 41, 50, 59, 68, 77, 86, 95
노랑	동쪽	15, 24, 33, 42, 51, 60, 69, 78, 87, 96
흰색	서쪽	16, 25, 34, 43, 52, 61, 70, 79, 88, 97
노랑	북쪽	17, 26, 35, 44, 53, 62, 71, 80, 89, 98
노랑	남쪽	18, 27, 36, 45, 54, 63, 72, 81, 90
노랑	동쪽	19, 28, 37, 46, 55, 64, 73, 82, 91
흰색	서쪽	20, 29, 38, 47, 56, 65, 74, 83, 92
노랑	북쪽	21, 30, 39, 48, 57, 66, 75, 84, 93
노랑	남쪽	22, 31, 40, 49, 58, 67, 76, 85, 94
노랑	동쪽	23, 32, 41, 50, 59, 68, 77, 86, 95
흰색	서쪽	24, 33, 42, 51, 60, 69, 78, 87, 96
노랑	북쪽	25, 34, 43, 52, 61, 70, 79, 88, 97
노랑	남쪽	26, 35, 44, 53, 62, 71, 80, 89, 98
노랑	동쪽	27, 36, 45, 54, 63, 72, 81, 90
흰색	서쪽	28, 37, 46, 55, 64, 73, 82, 91
노랑	북쪽	29, 38, 47, 56, 65, 74, 83, 92
노랑	남쪽	30, 39, 48, 57, 66, 75, 84, 93
노랑	동쪽	31, 40, 49, 58, 67, 76, 85, 94

한국ABC 인증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 강주현의 퍼즐월드

4	1		2	9	
		5	3		7
5		7			8
1	9		7	5	8
		3	1		
	3	6	5		9
6				8	2
4		1	7		
	9	4		8	7

		5	7		8
4	2	3	6		
	9	4			1
2		7	9	6	
	8	6	4	2	
1	4	2			7
	5		6	3	
	9	1	5	8	
2	9	5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토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9	2	8	9	2	7	6	1	8	5
6	9	8	2	9	1	8	2	7	4
2	7	1	8	6	2	7	5	9	8
1	6	2	7	9	8	6	2	8	7
7	9	2	1	6	8	5	9	2	8
8	5	9	8	2	7	6	1	9	4
8	2	7	6	1	2	8	9	5	4
2	1	9	8	7	5	2	8	6	3
5	6	8	2	9	1	7	4	3	8
9	6	2	8	9	1	7	4	3	8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현대인턴부 02 2020 1065 (9)03187 서울특별시 중구 성제1로 1

편집부 02 2020 1032 경재부 02 2020 1062 2008년 3월 31일

스포츠1부 02 2020 1041 뉴미디어팀 02 2020 1027 2008년 3월 24일 창간

편집국장 연재호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진부 02 2020 1069 2008년 3월 24일 창간

광고국장 이숙영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인쇄 동아일보사 sol@donga.com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